

‘09년 3/4분기 수출전망지수 및 수출경기 동향

차 례

I. ‘09년 3/4분기 수출선행지수

1. 수출선행지수 추이 및 3/4분기 수출전망
2. 구성요소별 추이

II. 수출기업체감지수

1. ‘09년 2/4분기 수출기업 평가지수
2. ‘09년 3/4분기 수출기업 전망지수

III. ‘09년 2/4분기 수출 개선·악화 원인 및 애로사항

1. 수출업황개선 및 악화 원인
2. 수출기업 애로사항

요 약

1. 3/4분기 수출선행지수 추이 및 수출전망

□ 3/4분기 수출선행지수 114.1 기록, 전기대비 2.3% 증가

- 중국 등 개도국 중심으로 경기회복 조짐, 가격경쟁력 개선 등으로 수출선행지수 상승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5.5%) 전기(-6.1%)보다 0.6%p 증가

□ 3/4분기 수출증가율은 -18% 내외를 기록, 감소폭 축소

-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유지하겠으나, 수출선행지수가 개선되고 조업일수도 증가(전년동기대비 2일)함에 따라 증가율이 상승할 전망

※ 수출증가율 추이(전년동기대비) :

27%('08.3/4) → -10%(4/4) → -25%('09.1/4) → -22%(2/4, 추정)

<수출선행지수 추이>

분기별	2007년			2008년				2009년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선행지수	114.2	115.1	116.6	116.5	118.7	120.7	120.3	114.7	111.5	114.1
전기대비 증감률(%)	0.4	0.8	1.3	-0.1	1.9	1.7	-0.3	-4.7	-2.8	2.3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1	2.9	2.7	2.5	3.9	4.9	3.2	-1.5	-6.1	-5.5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 차(%p)	-0.1	-0.2	-0.1	-0.3	1.5	0.9	-1.7	-4.7	-4.5	0.6

2. 수출기업 체감도 분석

□ 2/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전기(73)보다 크게 오른 97 기록

- 수출물량이 크게 개선되고 채산성도 안정화 됨

□ 3/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112로 전기(107)보다 소폭 상승

- 수출기업들은 경기회복에 따른 물량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채산성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하락 등으로 악화 전망

3. '09년 2/4분기 수출 개선·악화 원인 및 애로사항

□ 수출업황 개선 기업의 업황개선 원인으로는 수출대상국의 경기 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72.6%)와 원화환율 변동(28.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복수응답)

- 원화강세는 일반적으로 업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일부기업의 경우 선물환 거래 등으로 통한 환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수출업황 악화 기업의 악화 원인으로는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72.6%)와 원화환율 변동(57.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복수응답)

□ 2/4분기 중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원화환율 불안정(69.4%), 원자재 가격 상승(44.1%) 및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34.1%)가 꼽히고 있음

I. '09년 3/4분기 수출선행지수

1. 수출선행지수 추이 및 3/4분기 수출전망

□ 3/4분기 수출선행지수 114.1 기록, 전기대비 2.3% 증가

- 수출선행지수가 4분기만에 증가세로 반전하고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개선됨에 따라 수출경기 회복 가능성 증대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5.5%) 전기(-6.1%)보다 0.6%p 증가

□ 중국 등 개도국 중심으로 경기회복 조짐, 가격경쟁력 개선 등으로 수출선행지수 개선

- 수출대상국 경기전망 : 중국, 대만 등 개도국 경기가 개선되고, 미국, 유로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폭은 완화되는 양상, 러시아, 브라질 등 자원보유국은 경기개선 지연
- 수출단가 : 원화강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단가(달러기준)가 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기저효과로 하락하여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기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
- 가격경쟁력 : 국내수출단가 하락폭이 주요국 수출단가 하락폭을 상회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개선됨

※ 가격경쟁력 평가지수 : (주요국 수출단가/한국수출단가)*100

□ 3/4분기 수출증가율은 -18% 내외를 기록, 감소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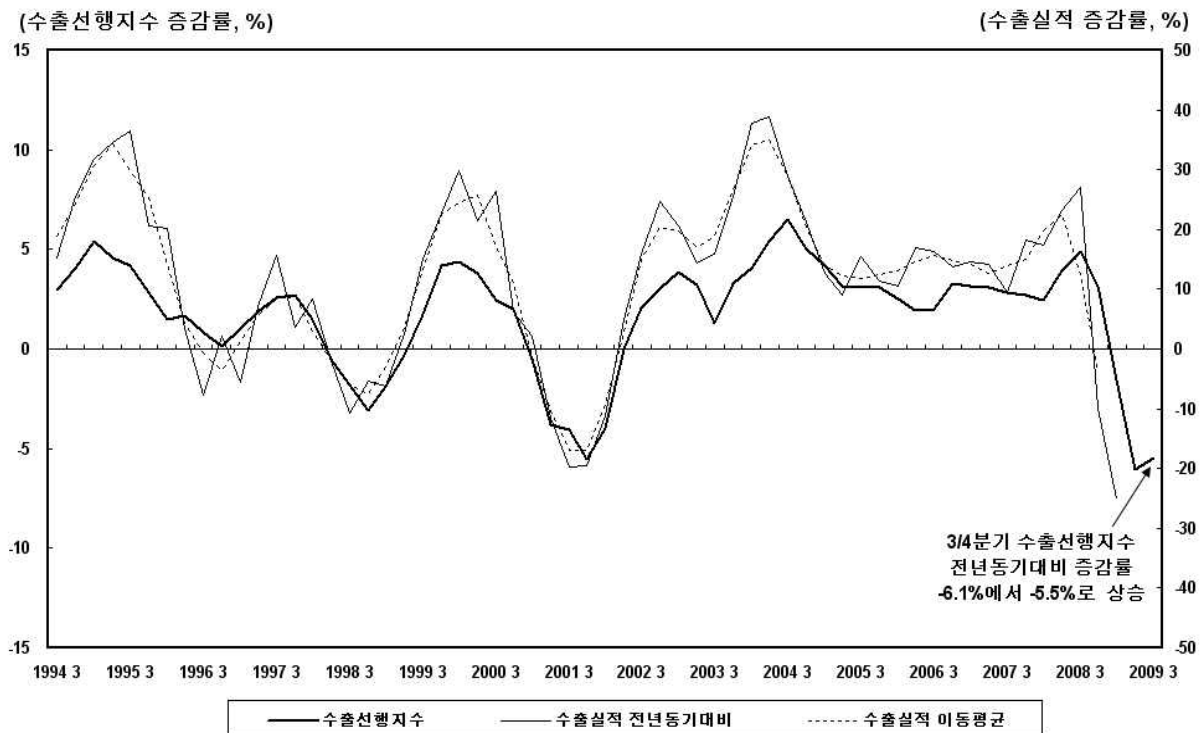
-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유지하겠으나, 수출선행지수가 개선되고 조업일수도 증가(전년동기대비 2일)함에 따라 증가율이 상승할 전망

<수출선행지수 추이>

분기별	2007년			2008년				2009년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선행지수	114.2	115.1	116.6	116.5	118.7	120.7	120.3	114.7	111.5	114.1
전기대비 증감률(%)	0.4	0.8	1.3	-0.1	1.9	1.7	-0.3	-4.7	-2.8	2.3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1	2.9	2.7	2.5	3.9	4.9	3.2	-1.5	-6.1	-5.5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 차(%p)	-0.1	-0.2	-0.1	-0.3	1.5	0.9	-1.7	-4.7	-4.5	0.6

주 : 수출선행지수의 구성요소에 수출단가, 동유럽,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경기선행지수를 포함시키는 변경작업을 통해 전체적인 지수시계열에 조정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수출선행지수는 변경된 기준으로 작성 발표됨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경기(수출실적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추이>



주 : 1) 수출실적은 계절조정치이며, 이동평균은 실적 3분기 이동평균임

2. 구성요소별 추이

□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선행지수가 전기대비 0.6% 상승함에 따라 대외수요가 회복될 전망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6.6%로 전기대비 0.8%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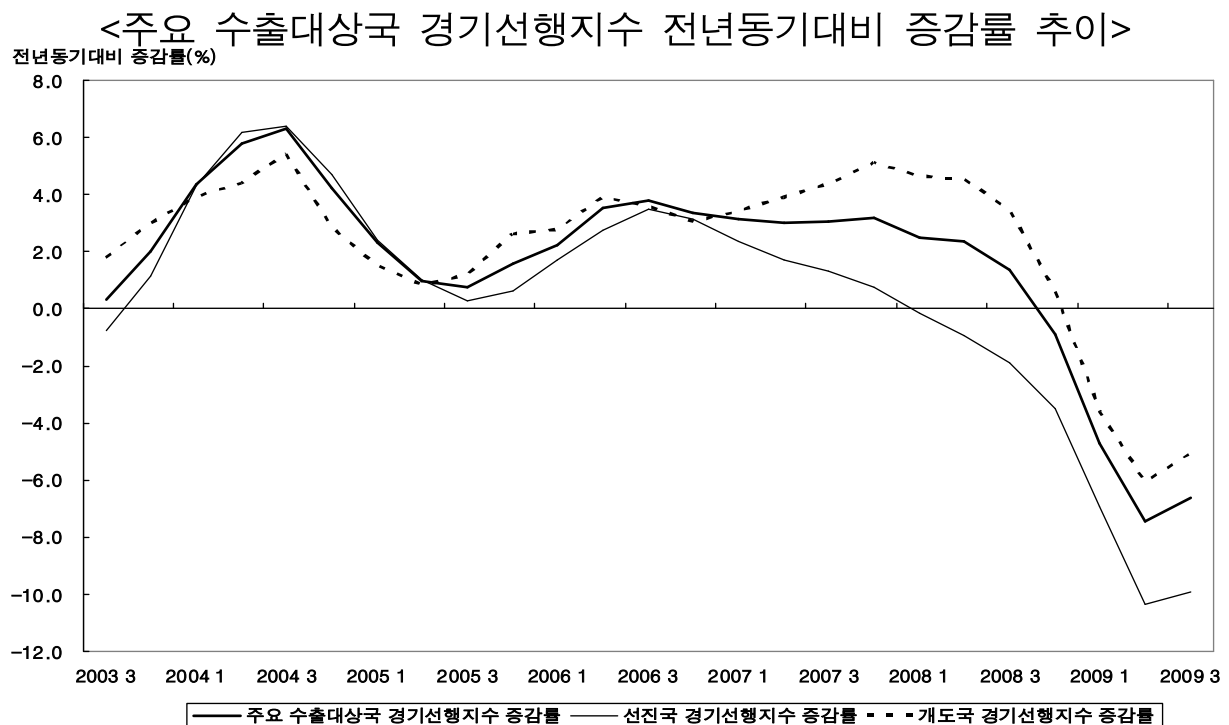
○ 선진국 경기선행지수는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전기대비 0.3% 하락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9.9%로 소폭 상승에 그침.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대선진국 수출회복폭은 크지 않을 전망

○ 개도국 경기선행지수는 전기대비 1.1% 상승하고 전년동기대비 증가률도 1.6%p 상승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증가율이 상승할 전망

- 개도국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기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5%p 상승한 반면 러시아, 브라질 등 자원보유국은 증가율이 더욱 하락함

※ 중국 경기선행지수 추이(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8('08.4/4) → -5.6('09.1/4) → -4.0(2/4) → -1.5(3/4)



□ 우리나라 수출단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1%로 전기보다 하락세가 심화되어 금액기준 수출증가율 하락요인으로 작용

○ 유가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상승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주요산업의 경쟁심화에 따른 단가하락 및 전년 3/4분기의 고유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하락폭이 심화됨

○ 원화환율의 하락세로 미달러화 기준 단가의 상승효과가 있었으나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함

※ 원/달러환율 추이(기간평균) :

1,017('08.2/4) → 1,063(3/4) → 1,363(4/4) → 1,421('09.1/4) → 1,291(2/4-6.17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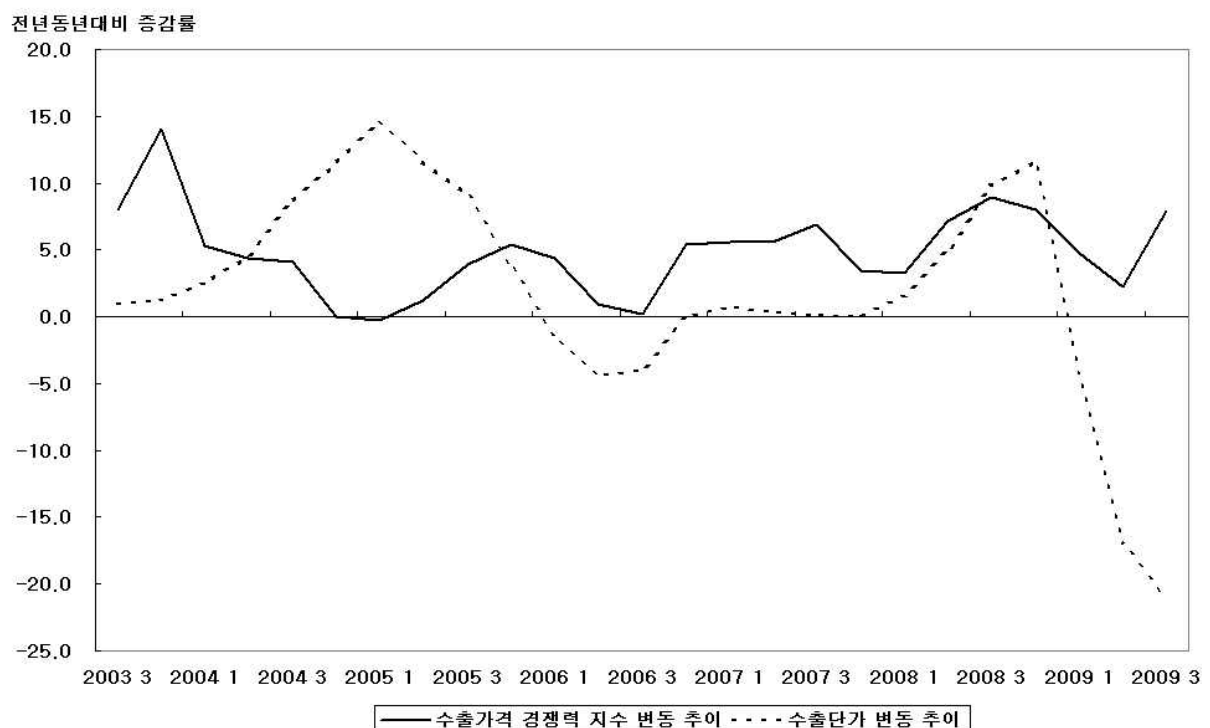
□ 수출가격 경쟁력은 전세계적 수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수출단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며 개선됨

○ 수출가격 경쟁력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7.9%로 전기대비 5.6%p 상승함

※ 수출 가격 경쟁력 지수

= 세계 수출단가지수/우리나라 수출물가단가 × 100

<수출단가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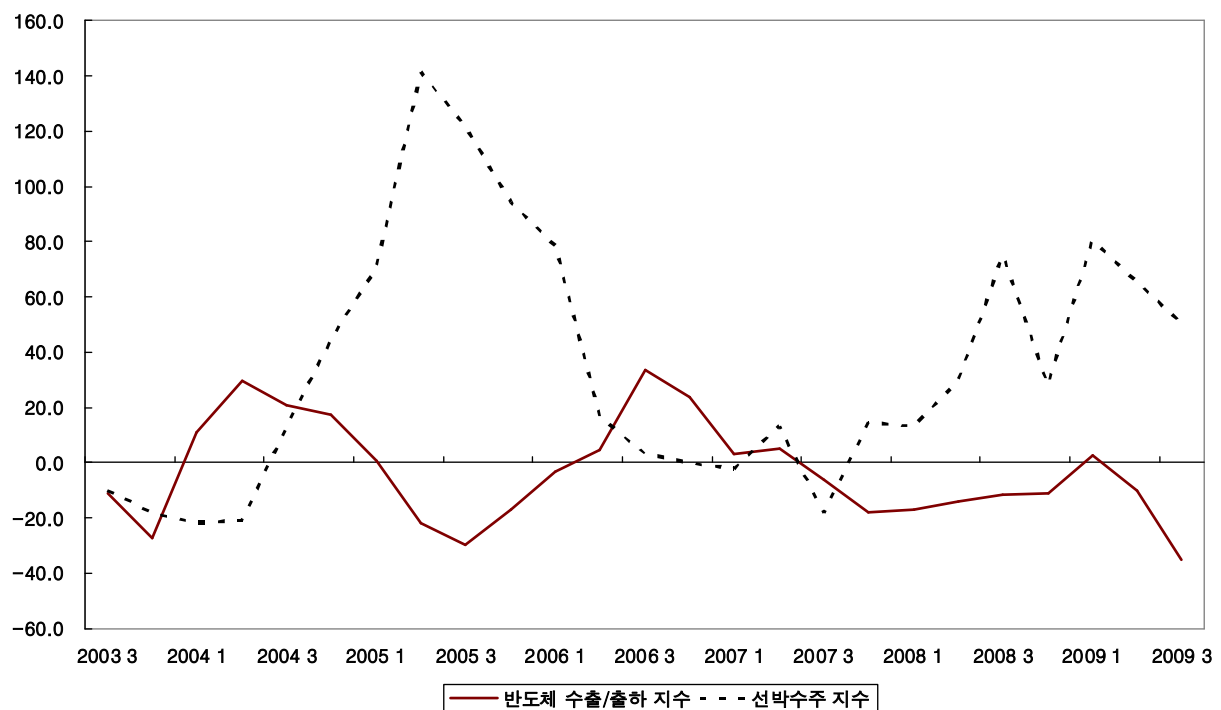
□ 주요 산업별로는 선박수출지수 및 반도체 등 IT 수출 경기지수 모두 증가율이 전기대비 하락함

○ 선박수주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50%로 전기(65%)보다 하락하여 전기대비 소폭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인도 스케줄에 따른 수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 반도체 수주/출하비율 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 전기대비 24.7%p 급락하여 반도체 등 IT수출의 부진은 지속될 전망

<주요산업 전망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II. 수출기업체감지수

1. '09년 2/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2/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수출물량이 크게 개선되고 채산성도 안정화되면서 전분기(73)보다 크게 오른 97을 기록함

○ 2/4분기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전기(92)보다 소폭 상승한 93을 기록, 기업들의 수출채산성이 전기대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2/4분기 수출단가(원화기준)평가지수가 하락(107 → 87)하였으나, 생산원가평가지수(116 → 104) 역시 하락함에 따라 전반적인 채산성은 다소 개선됨

· 원/달러환율이 전기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수출단가(원화기준) 평가지수와 생산원가 평가지수 모두 하락

※ 원/달러환율 추이(기간평균) :

1,063('08.3/4) → 1,363(4/4) → 1,421('09.1/4) → 1,291(2/4, 6.17일까지)

○ 2/4분기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에 힘입어 전기(68)보다 큰 폭 상승한 106을 기록

- 수출계약 평가지수도 전기(67)보다 대폭 개선된 105를 기록하여 수출업체들의 계약 성사 건 수가 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업황 평가지수	99	102	101	101	99	109	100	77	73	97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4	93	100	92	100	105	102	96	92	93
수출단가 평가지수	98	97	101	99	120	125	118	119	107	87
생산원가 평가지수	109	109	112	114	138	146	135	125	116	104
수출물량 평가지수	107	112	111	114	104	117	102	73	68	106
수출계약 평가지수	106	113	112	113	104	118	104	71	67	105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황평가지수가 각각 104, 95를 기록, 전기(대기업 75, 중소기업 72)보다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업황이 개선됨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대기업(97 → 103)은 전기보다 대기업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중소기업은 (90 → 89) 채산성이 다소 악화됨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전기(68)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111, 104를 기록하여 전기대비 수출물량 증가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플랜트(108 → 100)를 제외하고 자동차(56 → 93), 철강 및 비철금속(66 → 93), 기계류(70 → 95), 선박(75 → 100) 등 대부분의 산업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수출채산성은 자동차(85 → 92), 철강 및 비철금속(79 → 86), 석유화학(98 → 102)등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선박(121 → 100), 플랜트(108 → 93), 기계류(95 → 90) 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철강 및 비철금속,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 플랜트 등의 산업에서는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채산성이 악화된 기업수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수보다 많은 상황임
 - 산업별 수출물량 평가지수의 경우 자동차(41 → 101), 섬유류(70 → 114), 기계류(61 → 106), 철강 및 비철금속(58 → 96)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
 - 석유화학(94 → 116), 전기전자(74 → 104), 선박(93 → 107) 등은 기준치를 상회하여 수출물량이 개선된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 지역별 업황평가지수는 중남미(88 → 75)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업황이 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지역별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미국(95 → 93), 동남아(98 → 85), 중남미(106 → 65) 등에서 채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유로(88 → 94) 지역 수출기업은 유로화 강세 요인으로 채산성이 개선됨 ,
- 수출지역별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미국(62 → 108), 중국(68→ 109), 일본(69 → 102), 유로(62 →103), 동남아(67 → 96) 등 모든 지역에서 대폭 개선됨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 지역별 2009년 2/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물량 평가지수	
		'09년 1/4분기	'09년 2/4분기	'09년 1/4분기	'09년 2/4분기	'09년 1/4분기	'09년 2/4분기
규모 별	대기업	75	104	97	103	68	111
	중소기업	72	95	90	89	68	104
업 종 별	석유화학	90	102	98	102	94	116
	철강 및 비철금속	66	93	79	86	58	96
	전기·전자	76	98	91	87	74	104
	기계류	70	95	95	90	61	106
	자동차(부품 포함)	56	93	85	92	41	101
	조선	75	100	121	100	93	107
	섬유	78	96	102	100	70	114
	플랜트	108	100	108	93	100	100
지 역 별	미국	71	97	95	93	62	108
	중국	66	106	89	99	68	109
	일본	81	94	88	88	69	102
	유로	69	89	88	94	62	103
	동남아	71	90	98	85	67	96
	중남미	88	75	106	65	75	80

2. '09년 3/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3/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112로 2/4분기(107)보다 소폭 상승, 수출기업들은 수출업황이 2/4분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3/4분기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105로 2/4분기(106)보다 다소 하락하여 수출채산성이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기업체 수가 전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원화환율 하락으로 수출단가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판단
 - 수출단가(원화기준) 전망지수는 전기(103)보다 하락한 97을 기록
 - 생산원가 전망지수는 전기(110)보다 하락한 103 기록하였으나, 기준치(100) 상회, 3/4분기에도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3/4분기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117을 기록, 전기(110)보다 상승하여 기업들은 수출증가율이 전기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수출업황 전망지수 추이>

	2007년		2008년				2009년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업황전망지수	112	111	102	112	106	108	73	107	112
수출채산성전망지수	107	108	98	106	100	104	79	106	105
수출단가전망지수	101	104	102	115	114	104	93	103	97
생산원가전망지수	105	108	110	127	127	111	105	110	103
수출물량전망지수	118	118	110	122	116	113	72	110	117
수출계약전망지수	118	118	109	121	117	112	72	111	117

- 기업규모별로 볼 때 3/4분기 수출업황은 대기업(106 → 119)과 중소기업(107 → 110) 모두 전기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대기업(111 → 109)과 중소기업(105 → 103) 모두 전기보다 하락하여, 3/4분기에 수출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전기대비 증가함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대기업(115 → 123)과 중소기업(109 → 115) 모두 상승하였으나 대기업이 전기대비 수출물량 증가를 더 크게 전망하고 있음
- 산업별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전기전자(114 → 114)를 제외한 플랜트(108 → 121), 선박(100 → 117), 철강 및 비철금속(96 → 114), 자동차(96 → 107) 등 모든 산업에서 3/4분기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산업별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기계류(107 → 93)와 전기전자(111 → 108)에서 악화됨
 - 이는 이들 산업의 경쟁이 심해 수출기업이 환율하락에 따른 단가상승 요인을 가격에 반영시키기 어렵기 때문
 - 산업별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석유화학(110 → 127), 섬유류(106 → 125), 기계류(109 → 112), 철강 및 비철금속(107 → 119) 등 대부분의 산업이 전기수치를 상회하여 수출증가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기전자(120 → 119) 산업은 반도체 경기회복이 지연되어 전망도 소폭 악화됨
- 수출 지역별로는 중국(114 → 110), 중남미(100 → 100)를 제외한 일본(100 → 112), 유로(105 → 119) 동남아(100 → 108)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지역별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미국(109 → 100), 중국(112 → 104), 중남미(119 → 90)에서는 전기대비 하락함
 - 일본(99 → 108) 수출기업은 엔화강세가 예상됨에 따라 채산성 전망이 개선됨
- 수출지역별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미국(112 → 115), 일본(101 → 115), 유로(114 → 123), 중남미(94 → 120)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하여, 이들 지역에서의 수출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국(117 → 116) 지역 수출기업은 전기보다 전망이 개선되지 않았으나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여 수출개선 기업이 더 많음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 지역별 2009년 3/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수출업황 전망지수		수출채산성 전망지수		수출물량 전망지수	
		'09년 2/4분기	'09년 3/4분기	'09년 2/4분기	'09년 3/4분기	'09년 2/4분기	'09년 3/4분기
규모 별	대기업	106	119	111	109	115	123
	중소기업	107	110	105	103	109	115
업 종 별	석유화학	108	117	107	109	110	127
	철강 및 비철금속	96	114	101	104	107	119
	전기·전자	114	114	111	108	120	119
	기계류	105	107	107	93	109	112
	자동차(부품 포함)	96	107	101	101	99	113
	조선	100	117	114	120	104	113
	섬유	109	117	105	113	106	125
	플랜트	108	121	92	121	125	114
지 역 별	미국	109	110	109	100	112	115
	중국	114	110	112	104	117	116
	일본	100	112	99	108	101	115
	유로	105	119	107	113	114	123
	동남아	100	108	98	103	108	117
	중남미	100	100	119	90	94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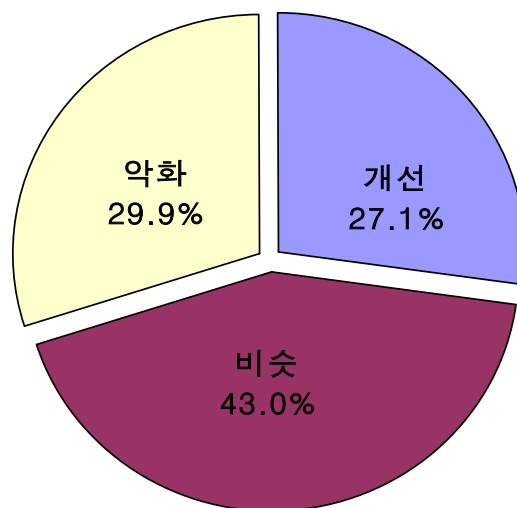
III. '09년 2/4분기 수출 개선·악화 원인 및 애로사항

1. 수출업황 개선 및 악화 원인

□ 2/4분기중 수출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기업 중 27.1%이며,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29.9%임

- 전기(개선: 15.7%, 악화:56.1%)에 비해 수출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함
- 나머지 43.0%는 수출업황이 '09년 1/4분기와 비슷하다고 답하여, 비슷하다고 체감한 기업의 수가 전기(27.9%)에 비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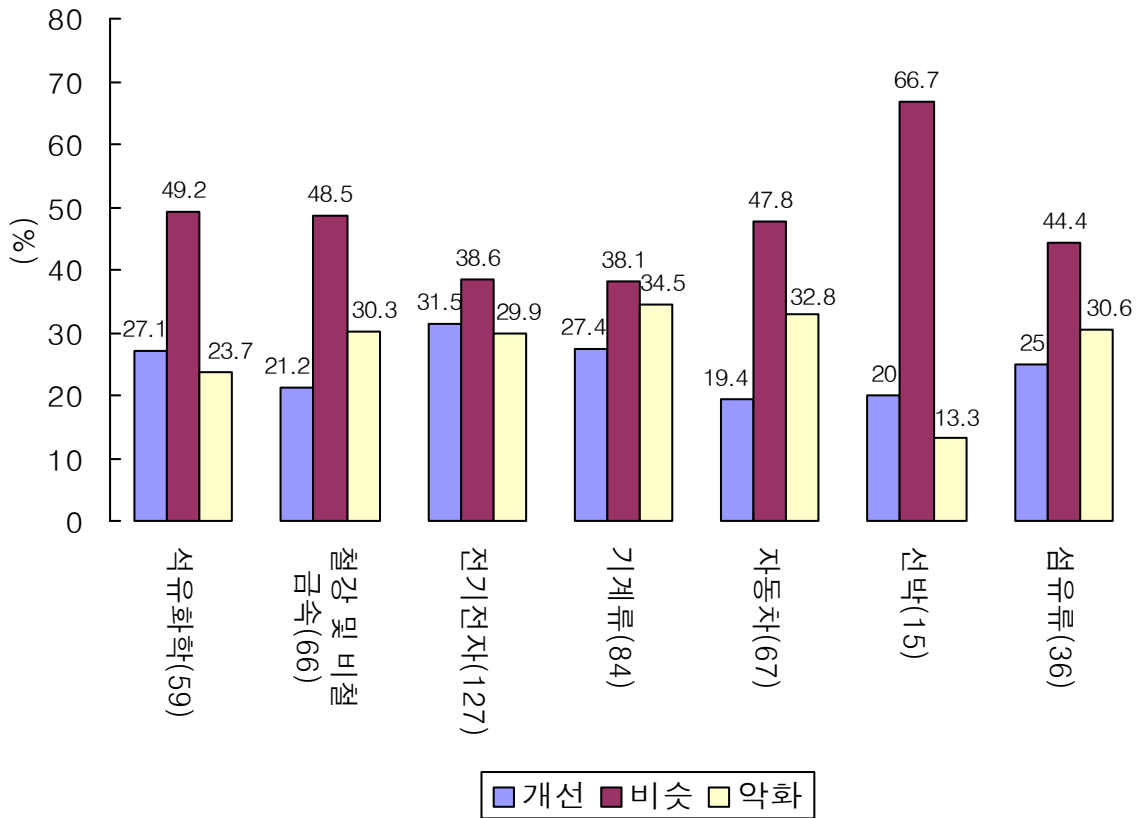
<수출기업의 업황개선 및 악화 분포>



총 기업수 : 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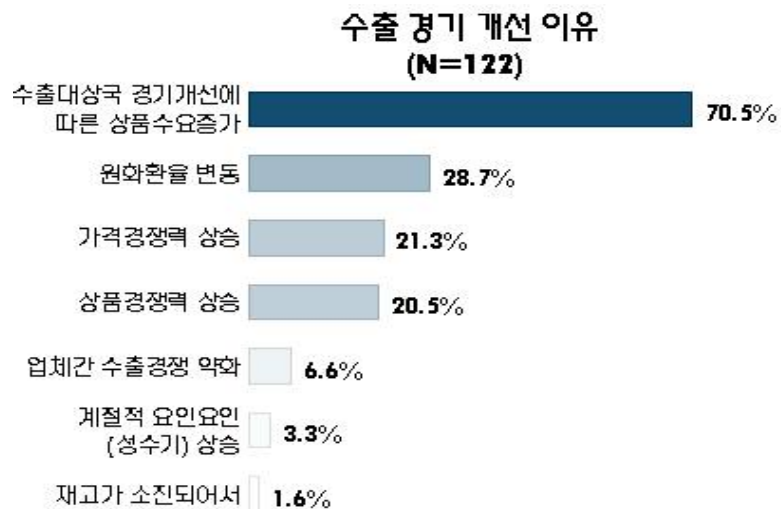
- 산업별로 보면 석유화학, 전기전자, 선박에서는 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보다 많음
- 철강 및 비철금속, 기계류, 자동차, 섬유류에서는 그와 반대로, 업황이 악화된 기업이 개선된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산업별 수출기업의 업황개선 및 악화 분포>



- 수출업황 개선 기업의 업황개선 원인으로서는 수출대상국의 경기 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72.6%)와 원화환율 변동(28.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복수응답)

<2009년 2/4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주 : 업황개선 기업수 12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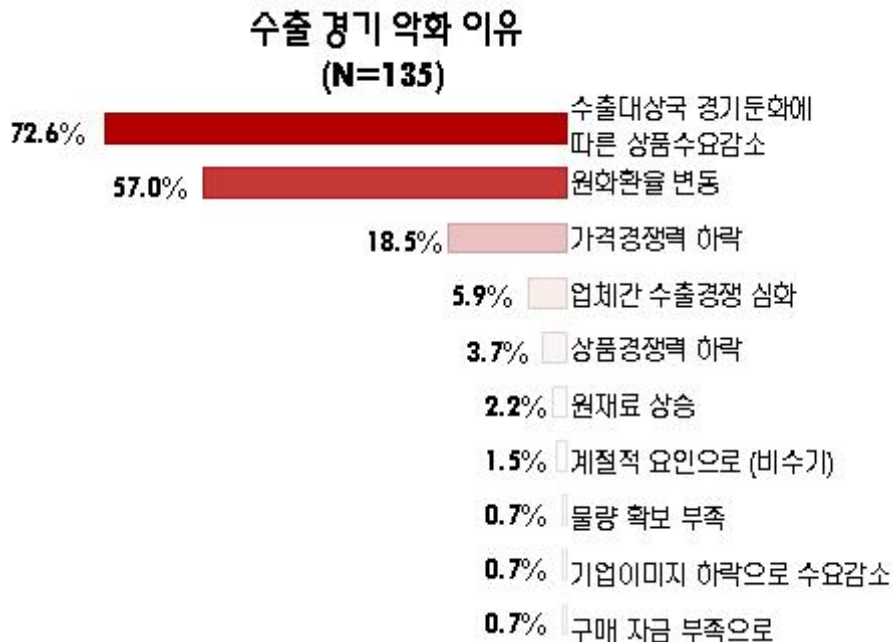
- 원화강세는 일반적으로 업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일부기업의 경우 선물환 거래 등으로 통한 환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플랜트(100%)를 비롯하여 석유화학(87.5%), 섬유류(88.9%), 기계류(73.9%), 철강 및 비철금속(71.4%) 등 대부분 산업의 경우 업황 개선 요인으로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를 답하고 있음
- 조선 산업의 경우 가격경쟁력 상승(66.7%)을 주요 개선 요인으로 꼽고 있어 다른 산업과 구별됨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 지역별 2009년 2/4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복수 응답, 단위 %)

		상품 경쟁력 상승	가격 경쟁력 상승	수출 대상국 경기개선	업체간 수출경쟁 악화	원화 환율 변동	기타
규모 별	대기업	21.1	26.3	76.3	5.3	13.2	5.2
	중소기업	20.2	19.0	67.9	7.1	35.7	6.0
업 종 별	석유화학	43.8	6.3	87.5	0.0	12.5	6.3
	철강 및 비철금속	14.3	21.4	71.4	7.1	42.9	0.0
	전기·전자	12.5	20.0	60.0	10.0	40.0	10.0
	기계류	8.7	21.7	73.9	8.7	26.1	8.7
	자동차(부품 포함)	23.1	30.8	69.2	7.7	23.1	0.0
	조선	33.3	66.7	33.3	0.0	66.7	0.0
	섬유	22.2	33.3	88.9	0.0	33.3	0.0
	플랜트	0.0	0.0	100.0	0.0	0.0	0.0
지 역 별	미국	25.6	12.8	74.4	10.3	23.1	5.2
	중국	14.3	32.1	78.6	3.6	25.0	0.0
	일본	16.7	27.8	61.1	5.6	33.3	5.6
	유로	9.1	18.2	54.5	0.0	36.4	27.3
	동남아	16.7	8.3	75.0	16.7	33.3	0.0
	중남미	0.0	100.0	100.0	0.0	0.0	0.0

- 한편, 수출업황 악화 기업의 악화 원인으로는 수출대상국 경기 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72.6%)와 원화환율 변동(57.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복수응답)

<2009년 2/4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주 : 업황악화 기업수 135개

- 전기전자(84.2%), 섬유류(72.7%), 철강 및 비철금속(70.0%), 기계류(65.5%) 등 대부분의 경우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를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답함
- 이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국가별로 회복속도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임
- 선박(100%)을 비롯하여 철강 및 비철금속(80.0%), 석유화학(57.1%) 등의 산업은 수출업황이 악화된 요인으로 원화환율 변동을 꼽고 있음.

<기업규모, 산업별, 수출 지역별 2009년 2/4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복수 응답, 단위 %)

		상품 경쟁력 하락	가격 경쟁력 하락	수출 대상국 경기악화	업체간 수출경쟁 심화	원화 환율 변동	기타
규모 별	대기업	3.6	28.6	71.4	3.6	53.6	7.2
	중소기업	3.7	15.9	72.9	6.5	57.9	8.4
업 종 별	석유화학	7.1	14.3	64.3	0.0	57.1	7.1
	철강 및 비철금속	5.0	15.0	70.0	5.0	80.0	10.0
	전기·전자	0.0	15.8	84.2	7.9	44.7	5.2
	기계류	0.0	17.2	65.5	3.4	58.6	13.6
	자동차(부품 포함)	13.6	27.3	63.6	0.0	50.0	9.0
	조선	0.0	50.0	50.0	0.0	100.0	0.0
	섬유	0.0	9.1	72.7	18.2	45.5	27.3
	플랜트	0.0	0.0	50.0	0.0	50.0	0.0
지 역 별	미국	2.5	20.0	75.0	7.5	55.0	5.0
	중국	0.0	5.9	58.8	5.9	64.7	11.8
	일본	4.2	16.7	83.3	4.2	45.8	8.4
	유로	4.8	23.8	81.0	4.8	61.9	4.8
	동남아	4.8	14.3	71.4	9.5	61.9	9.6
	중남미	20.0	40.0	60.0	0.0	20.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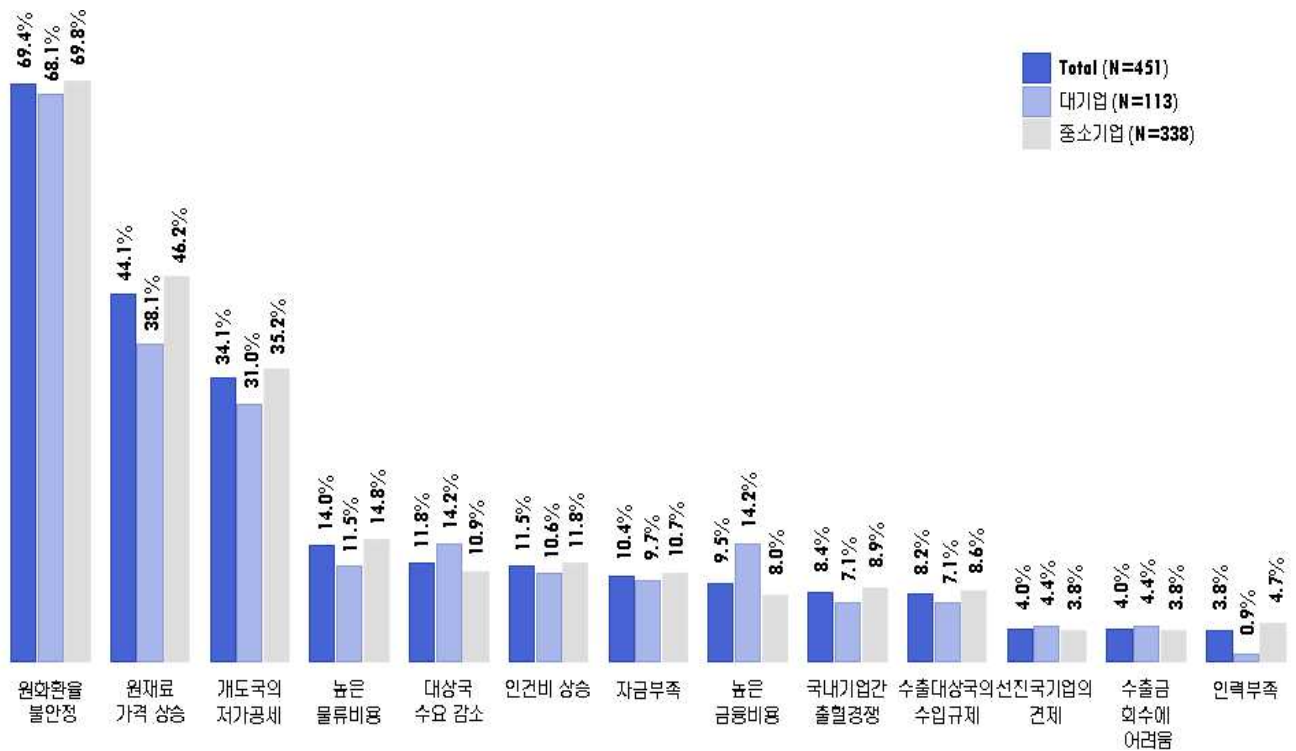
2. 수출기업 애로사항

□ 2/4분기 중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원화환율 불안정(69.4%), 원자재 가격 상승(44.1%) 및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34.1%)가 꼽히고 있음

○ 원화환율 불안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은 기업의 비중은 전기(65.0%)보다 다소 증가

- 환율의 경우 원/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 모두 전기대비 하락하여 수출기업들이 수출단가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경쟁력의 저하와 환율의 변동에 의한 위험을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 및 선진국의 견제 등에 따른 애로사항은 다소 낮아짐

<2009년 2/4분기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 조선, 섬유류, 석유화학 등 대부분의 산업의 경우 위 세 가지 애로사항 외에도 높은 물류비용과 대상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

<2009년 2/4분기 산업별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단위 %)

	석유 화학	철강 및 비철금속	전기 · 전자	기계류	자동차	조선	섬유	플랜트
원화환율 불안정	64.4	75.8	63.8	70.2	70.1	80.0	66.7	114.0
원재료 가격 상승	49.2	54.5	42.5	38.1	47.8	46.7	38.9	42.9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30.5	34.8	36.2	36.9	35.8	20.0	41.7	14.3
높은 물류비용	18.6	9.1	13.4	11.9	16.4	26.7	19.4	14.3
수출대상국 수요감소	8.5	13.6	13.4	11.9	9.0	6.7	13.9	0.0
인건비상승	8.5	9.1	13.4	9.5	11.9	26.7	8.3	0.0
자금 부족	10.2	9.1	9.4	7.1	10.4	6.7	25.0	0.0
높은 금융비용	8.5	12.1	11.0	14.3	6.0	6.7	0.0	0.0
국내기업간 출혈 경쟁	8.5	6.1	11.8	4.8	7.5	13.3	11.1	0.0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	5.1	9.1	4.7	9.5	9.0	6.7	8.3	14.3
선진국 기업의 견제	3.4	3.0	3.1	4.8	3.0	0.0	8.3	14.3
수출금 회수에 어려움	3.4	4.5	2.4	4.8	6.0	6.7	0.0	14.3
인력 부족	6.8	3.0	4.7	1.2	4.5	6.7	2.8	0.0